

통화경제론 석학 벤저민 프리드먼 하버드대 교수에게 듣는다

집값하락 진정세...美경제 하반기부터 회복될것



[케임브리지 워싱턴특파원] "미국 경제는 올해 하반기부터 회복될 것이다. 미국이 신용위기와 경기 침체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통화경제론 분야 석학인 벤저민 프리드먼 하버드대 교수(64)는 미국 경제에 대해 비교적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생산과 소비가 위축되고 고용이 감소하는 등 침체 국면에 돌입했다고 진단했다. 여러 경제지표를 감안할 때 미국 경제

가 지난해 11월에 정점을 찍은 후 침체에 들어갔다고 그는 설명했다. 프리드먼 교수는 그러나 주택가격 하락이 마무리되고 달러 약세로 인해 수출이 증가하고 있어 미국 경제는 올해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시장 신용위기와 관련해 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특히 베어스턴스를 JP모건체이스에 매각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베어스턴스 유동성 위기로 신용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지난 18일 하버드대 연구실에서 프리드먼 교수를 만나 최근 금융시장 동향과 미국 경제에 대한 진단과 전망을 들었다. -신용위기가 최대 이슈다.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가. >금융시장 내에서 신용위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대출기관이나 소비자의 나쁜 관행에서 비롯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에서 문제가 시작됐다. 이제는 다른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높은 레버리지(차입)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슈는 금융시장의 심각한 문제가 실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지다. 이미 경제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경제가 심각하게 침체될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본다. 다만 신용위기가 금융시장에 국한된다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최근 JP모건이 유동성 위기에 몰린 베어스턴스를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어떻게 평가하나.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모기지증권 거래 풀려야美신용위기 해결 JP모건이 베어스턴스 인수한건 잘한 일

첫째는 (메이저 금융기관 중 하나인)베어스턴스가 영업활동을 지속하게 됐다. 모든 영업관계와 비즈니스를 유지한 것은 좋은 것이다. 정부가 금융기관을 국유화하지 않고 목적을 달성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정부가 베어스턴스를 인수할 가능성도 있었다. 정부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금융기관을 살렸다. 만약 국유화를 했다면 국민 혈세를 쓰게 되는 것이다. 금융시장 충격을 차단하면서 베어스턴스를 시기적으로 유지하게 됐다. 이는 국유화를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선택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FRB가 베어스턴스를 구제할 것에 대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라는 비판도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베어스턴스 주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달러를 넘나들었고 매각 일주일 전만 해도 60달러였다. 이런 주식이 2달러에 매각됐다. 정부가 직

접 사들였다면 주주들 주식은 휴지조각이 됐을 것이다. 국유화를 하지 않는 대신 기존 주주들은 주당 2달러를 받게 됐다. 2달러는 모럴 해저드로 볼 정도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만약 회사 경영진이 다른 보호 장치를 두고 있다면 모럴 해저드라고 비난할 수 있지만 아직 잘 모르겠다. -리먼브러더스나 씨티그룹 등 다른 은행들도 유동성 위기에 몰릴 가능성이 염려되고 있다. 추가로 무너질 가능성은 없는지. >그럴 수도 있다. 다만 리먼브러더스 등 실적이 예상보다는 나쁘지 않았다. 이들 은행은 FRB가 구제해준 은행과 같은 범주에 속한다. 만약 추가로 유동성 위기에 몰려 무너지는 금융기관이 나온다면 정부는 베어스턴스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것이다. -이번 신용위기가 얼마나 더 오래 갈 것 같은가. >아무도 정확히 알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



는 모기지 관련 상품 거래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모기지 증권에 대한 평가가 잘 안되고 가격 또한 적정하게 형성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신용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신용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대책은 없나. >우선 거래와 유동성을 회복시키는 조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형 기관에 대해 거래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 또 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다. 모기지 관련 상품에 대한 가치를 평가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화경제론 분야 석학인 벤저민 프리드먼 하버드대 교수. 그는 지난해 11월 하버드대 연구실에서 만나 최근 미국 경제에 대한 진단과 전망을 들었다.

소득 2만弗 한국 고성장 쉽지않아 美사태 교훈삼아 금융안정 힘써야

-미국 경제가 이미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고 봐야 하나. >그렇게 생각한다. 내 생각으로 이미 경기 침체에 돌입했다고 본다. 경기 정점은 지난해 11월이었다고 판단된다. 생산 판매 고용 등 경기지표가 좋지 않다. -세계 최강 경제 대국 미국이 신용 위기에다 경기 침체로 글로벌 경제에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 경제가 어찌나 이런 지경까지 왔나. >그 같은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미국에서는 그동안 경기 확장이 좀 오래됐다. 2001년 말에 시작된 경기 확장이 7년이나 지났다. 경기 확장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 경제성장이 둔화됐다. 미국 경제가 침체국면에 들어간 것은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주택경기 붐이 과도했다. 들쭉날쭉한 주택가격이다. 전국 주택가격은 2000년에서 2005년까지 50%가량 올랐다. 하지만 주택가격이 급락하고 주택경기 붐이 꺼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 경제가 언제쯤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나. >주택가격 하락이 마무리되고 있고 미국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저금리도 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신용위기가 주택관련 시장 밖으로 확산되지 않는다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있던 금리 인하로 인해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인플레이

이션이 열려되고 있다. 특히 경기 침체 속에도 물가가 오르고 있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생산성이 낮을 때 발생하는데 미국 경제는 생산성이 여전히 높은 편이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미국 달러화가 다른 통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나.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국 정부가 금리를 낮추고 있어 달러화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국제 무역거래 임밸런스(불균형)다. 한 해 무역적자가 7000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미국 국내총생산(GDP) 4%에 해당된다. 어느 경제도 이 같은 무역불균형이 지속되면 건디가 어렵다. 현 상황에서는 무역적자를 절반으로 줄인다고 해도 금리 차이가 변화가 없다면 달러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중국 위안화는 평가 절상해야 한다고 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나. >중국은 여러 나라에 대해 무역흑자를 보고 있다. 따라서 위안화 가치를 더 높여야 마땅하다고 본다. -한국에서는 올해 세 정부가 출범했다. 한국이 재도약을 위해 가장 역점을 뒀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거시경제 안정과 예산 균형을 유지하고 산업경쟁력 확보, 견고한 금융

시장 유지 등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견고한 금융시장 유지를 강조하고 싶다. 견고한 금융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좋은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다. 최근 미국 금융시장을 보더라도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고 있다. -한국은 아시아 금융허브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국이 아시아 금융 허브가 되기 위한 전략은. >이미 일본과 홍콩 등이 아시아 지역 금융허브가 됐다. 하지만 한국도 금융허브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아시아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금융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강한 금융기관과 함께 좋은 규제와 관리 감독체계가 매우 중요하다. -최근 한국은 저성장에 머물고 있다.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주요 이슈다. 이명박 대통령도 대통령 선거 기간에 경제성장률 7%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 정도였다. 무리하게 경제 성장에 신경쓰다 보면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있는데. >한국 국민소득은 미국의 절반 정도다. 이 정도로 발전한 국가가 되면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중국은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 한국처럼 인구성장률이 낮은 상태에서는 그렇게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

Advertisement for the New KYRON car, featuring a man in a suit and the car itself. Text includes '부드러운 외모와 강인한 바디', '부드러운 매너와 강인한 카리스마', '부드러운 스타일과 강인한 추진력', '부드럽고 강인하게', '나에겐 드라이브도 스포츠다', and 'Power in style New KYRON'.

□ 프리드먼 교수는 벤저민 프리드먼 하버드대 교수는 미국 정치경제 학계를 선도하고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통화·재정정책의 권위자로 금융시장 역할과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에 대한 연구를 주로 했다. 하버드대 대학 경제학 학장을 지낸 그는 외국관계위원회 위원과 세계적 백과사전인 브리태니커 편집 이사회 멤버, 브루킹스연구소 펠로우, FRB 뉴욕은행 자원위원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또 전미경제연구소 금융시장·통화경제 담당 국장, 미 하원 예산위원회 자원위원 등을

지냈다.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1972년 하버드대 교수로 임용됐다. 월가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에서도 일한 적이 있으며 이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등과 함께 일하는 등 금융시장에 대한 풍부한 현장경험을 통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5년 한국은행이 주최한 국제 콘퍼런스에 초청되기도 한 프리드먼 교수는 조만간 자신의 명저 '경제성장의 도덕적 귀결'의 한글판을 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에 대한 하이테크, EURO IV 엔진, 2008년형 쌍용 SUV는 더욱 강화된 배출가스 기준의 EURO IV 엔진을 탑재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품질을 통해 더욱 깨끗한 지구환경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활용이 돋보이는 5인승 출시, 7인승에 이어 새롭게 출시된 뉴카이런 5인승은 레저생활을 위해 더욱 편리하고 실용적인 트렁크 공간을 제공합니다. 쌍용자동차 슈퍼세이프 할부 | 지금 New Kyrion을 구입하시면 36개월 중 3개월은 쌍용자동차가 대신 내드립니다. 차종 및 할부프로그램 상세 및 신청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ssangyong.com 을 참조하십시오 - 기간 3월 31일까지